

어! 공공인터넷 쇼핑몰이 더 비싸네

소상공인 지원 위한 북구 '복소e몰' 일부 물품 시중보다 비싸 소비자 외면 44개사 124개 상품 판매자 "수수료 때문에"... 북구 "가격 낮추도록 노력"

광주시 북구가 운영하는 '광주시 북구 e-커머스(복소e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부 상품이 업체 자체 쇼핑몰 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점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정작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7월부터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복소e몰'을 운영하고 있다.

북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지역 내 판매 경쟁 제약 개선, 전국적인 판로 확장 및 매출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44개 업체, 124개 상품이 입점해 있다.

북구는 "싸고 좋은 물품 빨리 득템해 가세요"라고 쇼핑몰을 홍보하고 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세특상품으로 기획돼 시중가보다 저렴했지만, 특정 품목은 업체 자체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라와 있다.

한 카페에서 판매하는 1kg 원두의 경우 해당 카

페 홈페이지에서는 4만 5000원(무료배송)에 판매되고 있지만 복소e몰 홈페이지에서는 4만 7900원(배송비 4000원 별도)에 판매하고 있다. 200g 원두 세트 구성 역시 같은 가격 차이로 복소e몰이 더 비쌌다.

'BEST' 상품인 한 식품업체의 세트는 복소e몰에서 20% 할인해 판매하는 가격과 자체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원가가 똑같았다.

북구는 복소e몰 개설 100일을 기념해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구비 500만원을 들여 전 제품에 대해 20% 할인과 구매자 전원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할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시중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었다.

모 식당에서 판매하는 젓갈류(600g)의 가격 역시 식당과 자사몰에서는 1만 5000원(배송비 2000원)에 판매 중이지만 복소e몰에서는 20% 할인된 가격이 1만 8000원(배송비 3000원)이었다.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6500원짜리 반려동물 간식이 복소e몰에서는 7700원, 7000원짜리 애완동물 간식이 82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오히려 바가지를 쓰는 것 같다"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만간 인상할 가격을 미리 복소e몰에만 적용했다는 일부 업체도 있었지만, 더 비싼 가격에 올린 일부 업체는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고물가에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최저가로 판매하던 제품에 수수료를 붙이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제품 가격 책정은 업체 자율이라는 입장이다.

북구 담당자는 "판매자가 포털사이트에 6%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을 책정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가 비교를 해서 사게 돼 있지만 복소e몰 사업의 주안점은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의 다양화다. 복소e몰에서 가격이 시중가 보다 높게 책정된 상품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가격을 맞춰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할인 프로모션을 더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북구가 자체 선정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온라인쇼핑몰 복소e몰 개설 운영사업'이 선정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덤프트럭 가로수 "꽂" 11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에서 5t 덤프트럭이 인도를 덮쳐 운전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가로수와 빗물받이 기둥이 훼손됐다.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 제공>

SM우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뇌물수수 의혹 감사 결과는?

광산구, 공무원 자체감사 발표 "특혜 등 위법성 판단할 수 없어" 지인·친인척 5채 분양 사실 확인 검찰은 청탁 가능성 수사 계속

광산구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위법성은 판단할 수 없다'는 자체 감사결과를 내놨다.

광산구는 11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담당공무원 A씨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A씨의 지인·친인척이 5채의 관련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A씨가 건

설사에 특혜를 주거나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일반 22가구 중 5가구를 지인·가족에 소개해 줬으나, 공동주택 특별법상 분양 전환 계약을 하지 않는 가구(미분양)가 30가구 미만일 경우 일반 공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청탁 대가성에 대해서도 "실제 분양가는 우방측이 신청한 가격보다 약 10% 낮게 책정했다"며 "최근 5년간 광산구에서 진행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건 및 승인가격을 비교해도 가장 많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산구가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우방측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전용면적 59㎡가구를 1억7000만원 상당, 79㎡가구는 2억4000여만원에 분양 전환을 신청했지만 광산구는 각 1억 6000여만원, 2

억 3000여만원으로 낮춰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2022년 12월 SM우방 건설 측(우방)으로부터 광산구 도산동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말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광산구 공동주택과와 SM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한편, 광산구는 뇌물수수와 관련해 또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병규 구정장은 "윗선 개입성 등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가 많아 불가피하게 수사중임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말다툼하다 이혼한 남편에게 흥기 휘둘러

광주광산경찰, 50대 여성 입건

이혼한 남편에게 흥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전남편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남편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래전 이혼한 사이로, 사건 당일 자녀 문제로 B씨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씨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보임에 따라 긴급 입원 조치했으며, 퇴원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사건 인사이트

왜 그랬나...마약류 상습 투약한 의사

허리 수술 통증 완화 위해 마약류 진통제 투약하다 중독...징역형

허리 수술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류 진통제를 투약하다 중독돼 상습 투약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다량의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다 적발돼 병원을 옮겨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300여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2023년 마약성 진통제를 134회에 걸쳐 21만4000여정 반복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3년께 척추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14년·2016년·2017년 수술을 받았다. 허리 통증으로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지역 13개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A씨는 당시 1일 총 투여량 8정(1회 투여량 2정, 하루4회)으로 30일 동안 240정을 처방받아 투약해오다 2021년 9월께 마약류 진통제 중독·의존증상을 보이게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정상적인 처방량 보다 받은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하기 시작했다.

A씨가 투약한 마약류 진통제(5mg)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의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4~6시간마다 초기 1회 용량 1정을 복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300정에서 많게는 400여정까지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약처 단속을 적발돼 처방을 못하게 되자 근무 병원을 옮겨 스스로 처방해 투약했다. 이후 지난해 4~5월 다른 병원을 방문해 추가 처방을 받아 마약류진통제를 투약했다.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통증완화 목적으로 처방해 복용해 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중독판결 검사 결과와 의료자문 회신 등에 따르면 A씨의 처방·복용량은 정상수치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으로 마약(아편계)남용, 의존 중추군으로 진단된다"면서 "A씨가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애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